

부모와 교사가 먼저 깨어야 한다

지두 크리슈나무르티



삶을 이해하는 교육

교육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물어본 일이 있는가? 왜 우리는 학교에 가서 그 많은 과목들을 공부하고, 왜 시험을 보며 더 좋은 점수를 얻으려고 서로 경쟁을 해야 하는가? 대체 우리는 왜 교육을 받으려고 안달하는가?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인가? 직업을 갖고 돈을 버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뿐인가? 그것을 위해 우리가 교육을 받는가?

삶은 분명히 직업만이 아니다. 삶은 놀라울 만큼 깊고 넓은 무엇이

지두 크리슈나무르티(Jiddu Krishnamurti) — '세계의 교사' 라고 불리는 그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삶의 온갖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된 인간해방의 가르침을 폈다. 교육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인도와 영국, 미국에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과 교사와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여기 소개하는 글은 《굴레에서 해방을 Education & the Significance of Life》(심설당)과 《Commentary on life》에서 뽑은 것이다.

며 하나의 위대한 신비다. 우리가 다만 돈벌이를 하는 데서 그친다면 우리는 삶 자체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삶을 이해하는 일은 시험을 잘 보고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대개 삶의 작은 한 부분만을 알려고 한다. 시험에 합격하고 직업을 얻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갖고 그러면서 우리들은 점점 기계를 닮아간다. 한편으로 삶에 대해서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우리는 학위를 따고 이름 뒤에 직함을 기다랗게 늘어놓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다음은? 그러는 동안 우리 마음이 무디어지고 어리석어진다.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젊을 때 삶이 과연 무엇인지 탐색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들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지성을 일깨우는 것이 교육이 진정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지성이란 무엇인가? 지성은 어떤 틀이나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며 무엇이 진실인지 스스로 알아내는 능력이다.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이런저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주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결국 삶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지성이 꽃필 수 없다. 우리가 젊을 때 아무 두려움이 없는 자유로움 속에서 살 수는 없는 것일까? 하고 싶은 대로 아무 것이나 하는 자유말고, 삶의 모든 과정을 알게 해줄 자유 속에서 말이다.

우리들 부모나 사회는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고, 우리들 자

신도 대부분 아무 탈 없이 살기를 바란다. 아무 일 없이 산다는 것은 대개 여기저기 눈치를 보며 흉내내며 산다는 말이고, 곧 두려움 속에서 산다는 뜻이다. 무엇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묻고 관찰하고 배우고 깊이 깨어 있을 수가 없다. 두려움은 우리를 둔감하게 만들고 창의력을 파괴하며 우리가 너그러움이나 사랑이라 부르는 불꽃을 꺼버린다. 그러므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은 어떤 시험보다, 어떤 학위보다도 중요하다. 교육이 해야 하는 일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창의력과 사랑을 파괴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깨끗이 씻어내는 일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얻거나 사실들을 끌어모아서 엮는 일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전체로 깨닫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삶을 가득하고 완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교육이 해야 할 일이다. 오늘날의 교육은 단순히 기술만을 강조함으로써 완전히 실패했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기술과 능률만 개발한다면 갈수록 둔감하고 무자비한 사람이 될 것이다. 기술 지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 내면의 갈등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기술이 우리를 파괴하는 도구로 변한 것은 삶의 전체 과정을 깨닫지 못하고 기술 지식만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올바른 교육은 어떤 기술을 가르치기도 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 곧 온전한 삶의 전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야말로 사람의 능력과 기술이 본래의 올바른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삶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우리 스스로를 깨닫는 것이다. 바로 이 깨달음이 교육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다. 참된 뜻에서 교육은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존재 전체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참된 교육은 개인이 온전하게 자라서 자유를 누리고, 사랑과 덕성이라는 위대한 꽃을 피우도록 북돋워 주는 일이다. 우리가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같은 진정한 교육이지, 어린이를 어떤 이상의 틀에 끼워맞추는 일이 아니다.

어떠한 제도나 방법도 결코 올바른 교육을 보여주지 못한다. 특별한 방법을 고집하는 것은 분명히 교사의 게으름을 드러내는 것이다. 교육이 틀에 박힌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한 그 교육은 능률적인 인간만 길러내지 창조적인 사람을 길러낼 수는 없다.

오직 사랑만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사랑이 있을 때에만 같은 시간에 같은 정도로 다른 사람과 함께 교감을 나눌 수 있다. 우리 자신은 너무나 메마르고 텅 비어 있으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정부와 제도가 우리 자식들의 교육과 우리 삶의 방향까지 떠맡아서 결정하도록 놔둬왔다. 그러나 정부는 능률적인 기술자를 원할 뿐 결코 인간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살아 있는 사람은 정부나 조직화한 종교에게는 위험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바로 그 때문에 정부와 종교단체들이 교육을 장악하고 지배하려 드는 것이다.

올바른 교육은 어린이들에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에 맞는 인간형의 틀을 덮어씌우지 않고 어린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데 있는 법이다. 어린이를 어떤 이상의 틀 안에 가두어버리는 것은 규범에 순

응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이같은 순응은 본래 있는 그대로의 자기와 이상의 틀에 맞추어진,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자기와의 사이에 끝없는 갈등을 일으키고 불안을 낳는다. 그리고 내면의 모든 갈등은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바깥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상은 우리가 어린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어린이가 스스로를 깨닫는 데 장애물이 될 뿐이다.

진실로 자기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부모는 이상이라는 틀을 가지고 자식을 바라보지 않는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라면 아이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아이의 성격이나 기분, 버릇 따위를 살피며 연구한다. 자식에게 사랑을 느끼지 않을 때 부모는 자식에게 이상이라는 굴레를 씌운다. 그리하여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자식에게 이러저러한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을 사랑하지 않고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식이 본래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아이가 거짓말을 할 때 그 아이에게 진실이라는 이상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그럴 때는 아이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원인부터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어린이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는 사랑과 인내심을 가지고 오랜 시간에 걸쳐 관찰하고 연구해야만 한다. 그러나 사랑이 없을 때, 진정한 이해가 없을 때 우리는 이른바 이상이라고 부르는 어떤 행동 규범에 어린이를 억지로 끼워맞추려 든다.

이상은 하나의 편리한 도피처이다. 이상만을 좇는 교사는 아이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고 또 지혜롭게 보살필 수도 없다. 그런 교사에

게는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미래의 이상이 지금의 아이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상을 좇는 것은 사랑에서 멀어지는 길이다. 그러나 사랑 없이는 사람들 사이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다.

만약 올바른 교사라면 결코 어떤 방법에 매달리지 않고 한 아이 한 아이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만날 때 가장 명심해야 할 점은, 이들을 마치 쉽게 고쳐지는 기계 장치처럼 다룰 것이 아니라, 감수성이 풍부하고 생명력에 차 있으며 민감하고 두려워하며 다정다감한 생명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크나큰 이해심, 곧 사랑하고 참는 힘을 지녀야만 한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흔히 손쉬운 교정 수단을 찾아서 기계적이고 기적 같은 어떤 결과가 나오기만 바라게 된다.

그러므로 대량교육으로는 어떤 중요한 가치도 이룰 수 없다. 오직 아이들 저마다가 지닌 기질과 능력, 장애를 주의깊게 살피고 이해함으로써 정말로 가치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자각한 사람들, 그리고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깨우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삶 속에서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세워야 한다. 하지만 그런 학교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갖출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우리는 집안에서부터 참된 교사가 될 수 있으며 또, 기회는 성실한 사람에게 찾아오기 마련이니까.

자기 자식들과 주위의 젊은이들에게 사랑을 쏟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나 어느 길모퉁이에서나 올바른 학교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알

게 될 것이다. 그 다음은 돈 문제인데, 그것은 힘이 닿는 만큼 고려하면 된다. 제대로 된 작은 학교를 유지해 나가는 일이 재정상 힘이 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학교는 넉넉한 은행구좌를 기반으로 하기보다 함께 하는 이들의 헌신을 토대로 할 때 유지되고 번창할 수 있다. 그러나 정말로 가치가 있는 학교라면 필요한 도움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모든 문제는 풀어갈 수 있다.

부모와 교사부터 깨어나야 한다

올바른 교육은 먼저 부모와 교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부모와 교사들이 자기를 깨닫고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부모와 교사가 아이들에게 주는 것은 다름아닌 그들의 됬됨이인 까닭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아이들이 아니라 곧 부모와 교사이다.

부모들이 참으로 자식들을 걱정한다면 새로운 사회를 만들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근본적으로 자식들을 염려하지는 않는다. 부모들은 돈을 벌고 즐기거나 종교의식에 참석하는 데는 시간을 들이지만 자식들을 위한 올바른 교육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데는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 이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교육문제와 맞닥뜨리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뜻한다. 올바른 교육과 맞닥뜨린다면 사람들은 아마 즐거움과 오락을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른다. 확실히 사람들은 올바른 교육과 마주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식들을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교사들이 아이들을 염려하지 않는 그런 학교에다 자식들을 보내 버린다. 왜 교사가 아이들을 걱정해야 하는가? 가르친다는 것은 교사에게 단지 하나의 직업이요,

돈을 버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데 말이다.

교육이 가장 명예롭고 책임있는 직업이 되는 대신 지금은 오히려 업신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교사들은 일상의 굴레에 얽매어 있을 따름이다. 인간의 완성과 슬기에는 진정한 관심이 없고 다만 지식 전달에만 급급할 뿐이다. 무너지고 있는 자기 주변 세계에 대한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을 교사라고 할 수는 없다.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 지혜와 진리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교사이다. 진리야말로 교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진리는 어떤 나라, 어떤 신조에 얽매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원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곧 썩어버린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우리들이 저마다 진실한 교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곧 우리가 학생이자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르쳐야 한다.

어떤 학위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기꺼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흔히들 가장 훌륭한 교사가 된다. 그들은 전문가가 아니므로 삶을 배우고 깨닫는 데 흥미를 보인다. 참된 교사가 가르치는 것은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진실한 교사는 위대한 예술가처럼 창조하는 일을 포기하기보다는 차라리 굶주림을 택할 것이다. 이같이 가르치고 싶은 불꽃 같은 열망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타고난 품성이 자기에게 있는지 어떤지를 스스로 발견하고, 또 단순히 생계 수단으로 무작정 가르치는 일에 덩벼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올바른 교사가 될 수 있는가?' 하고 물

을지 모른다. 그러나 ‘어떻게’ 라고 묻는 것은 분명히 자유로운 마음이 아니고 어떤 이익이나 결과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며 또한 겁많은 마음이다. 무엇인가 되려고 하는 바람이나 노력은 단지 마음을 그 욕망의 대상에 끼워맞추어 적응하도록 할 뿐이다. 하지만 자유로운 마음은 늘 깨어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또 탐구하고 배움으로써 마음이 스스로 지어낸 모든 굴레를 벗어던져버린다.

자유는 바로 처음부터 있는 것이지 끝에 가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라고 묻는 순간 넘어설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온 삶을 바쳐 교육에 헌신하기를 열망하는 교사라면 결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교사는 올바른 교사가 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관심을 쏟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라는 결과를 보장해줄 어떠한 방법도 요구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깨달은 사람은 가르치는 기술에서도 체험으로 어떤 경지에 이른다. 창조하고자 하는 내적 충동은 나름대로 고유한 숨씨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가장 위대한 예술이다. 어린이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 창조적인 충동에 사로잡힐 때는 어떻게 그럴 것인가 하는 기교 따위는 생각 않고 그냥 그려 나갈 뿐이다.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체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교사들이며 그런 교사들은 또한 나름대로의 고유한 숨씨를 펼쳐 보인다.

하지만 가르치는 일이 진실로 우리의 천직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같은 교육의 혼란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지 못해서 때때로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올바른 교육의 본질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필요한 추진력과 열정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은 의지나 결심의 문제가 아니고 인식과 깨달음의 문제이다.

가르치는 일이 자신의 천직이고 또한 올바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역시 올바른 교사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좇을 필요가 없다. 개인의 자유와 완성에 이르는 데 무엇보다 올바른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함으로써 그 사람 속에 본질적인 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올바른 교육으로만 사람들에게 평화와 행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모든 삶과 관심을 올바른 교육을 위해 바치게 될 것이다.